

“꿈을 모아 팝니다” “구경도 하고 사가세요”

GOOD JOB

광주광역시 특수학교 '꿈에 그린'
현장중심 직업교육 실천

광주선광학교(교장 조순아)에서는 늘 달콤한 냄새가 난다. 현장중심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학교 정문 옆에 위치한 '꿈에 그린'에서 나는 빵굽는 냄새이다.

꿈에 그린은 이제까지의 직업교육과는 조금 다른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위한 공간이다.

지난 2008년 11월 문을 연 꿈에 그린에서는 성공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작은 발걸음들이 한발 한발 앞으로 향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직업교육은 학생이 3주간 현장에서 실습을 한 후 지원고용이 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습을 나간 후 얼마 되지 않아 적응을 못해 돌아오는 학생들이 있어 실제 직업생활에서 장애학생들이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이 부족하고 대인관계가 서툴다는 것이다. 판로가 없다는 점도 큰 문제였다.

이를 감안하여 학생이 직접 만든 직업 교육 결과물을 학생이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통합



◆광주선광학교 학생들이 꿈이 키우고 있는 '꿈에 그린'.

직업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공간을 구상하던 중 '꿈에 그린' 가게를 만든 것이다.

'꿈에 그린'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직업교육을 통해 생산되는 다양한 작품으로 천연비누, 도자기, 비즈·펠트 공예작품, 제과제빵, 화초 등이 있다.

여기에 직업 교과 사이의 상호 협력을 통해 도예와 원예(도자기와 화초), 조립·포장(천연비누 및 베이커리와 포장)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꿈에 그린'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일 또한 학생들이 직접 하고 있으며 판매 시간은 오전(9시 30분~11시30분), 오후(13시~15시)로 학생들을 순번으로 배치하여 판매

활동에 고른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물건 값을 받고 거스름돈을 챙기고 판매물품 목록을 작성하면서 미래의 서비스업 종사자로서 성장하고 있다.

'꿈에 그린'은 단지 학생들의 상품을 전시하고 형식적으로만 가게를 운영하는 곳이 아니다.

그곳에 가면 학생들이 꿈을 녹여 만든 작품들이 있다.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전교생이 제품을 사는 경제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려있는 꿈의 공간이다.

김순기 기자 ksk@eduyonhap.com



광주석산고, 인조잔디 운동장 준공

안순일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지난 12월 23일 석산고등학교(교장 구희연) 인조잔디 운동장 준공식에 참석 축하에 이어 테이프 커팅을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광주용봉중,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우수학교 선정

광주용봉중(교장 정우성)은 지난 16일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우수학교' 100개교에 선정되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 학교는 시·도 교육청의 1차 심사를 통과한 165개교를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것어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즐겁고,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HAHA 프로젝트'란 주제로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 주제는 교육과정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얼마나 기여하는 가라는 내용보다는 각 학생의 바람직한 인격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중점을 두는 교육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HAHA 프로젝트는 '교육활동 로드맵'을 일컫는 말로, 4개관(지성관, 예능관, 건강관, 정서관)을 나타내는 약어이다.

지성관(Head Aspects)은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영어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용봉 English Day, 원어민 영어회화 교육, 영어전용교실의 활용, 영어원서 읽기, 영자신문 발간 등이 그것이다.

예능관(Artistic Aspects)은 Life-Long Education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천연비누 만들기, 한지 공예, 다도 체험, 한국화, 음악줄넘기, 해금 등 다양한 부서를 조직해 운영했다.

건강관(Healthful Aspects)은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5회의 연수, 8개의 클럽, 8개의 지역연계 프로그램, 5개의 외부강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정서관(Affectional Aspects)은 사활 꽃 피는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운동을 펼쳤다.

수목 정성, 텃밭 가꾸기, 야생화 기르기, 학급 화분 기르기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기여했다.

학교는 학교의 교육목표·창의적인, 인간적인 학생-를 양성하는데 있어 HAHA프로젝트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학생들은 오고싶고, 선생님들은 즐거운 직장이 되는 이상적인 학교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조민철 기자
jmc@eduyonhap.com

‘행복한 부모 행복한 아이’

광주동부교육청, 학부모 독서연수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교육장 이상태)에서는 지난 12월 21일 동부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부모 독서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학부모 독서연수는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이기영 교수가 초청되어 '행복한 부모가 만드는 행복한 아이'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영 교수는 "행복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가 웃어야 하며,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해야 하고, 아이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행복한 부모는 부부간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하며, 용서하고, 자신만의 행복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번 연수에서는 내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광주교대 광주부설초등학교 심혜옥 교장의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해'에 대한 강의가 병행되어 참석한 학부모들이 내년에 실시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날 연수에 참석한 신현순(경향초등학교 학부모독서회장) 학부모는 "금번 학부모 독서연수가 아울러 행복한 부모는 부부간에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었으며, 내년도에 실시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상태 교육장은 "책이 바꾼 세상, 부모가 변화시키는 아이의 인생"이라는 주제의 인사말을 통해 책은 개인의 인생 설계와 세상을 빠르고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이고, 자녀의 독서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부모의 독서 습관과 읽은 책의 내용으로 자녀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의 독서교육은 물론 부모의 독서 연수를 활성화하여 동부교육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밥상머리 교육’

충북도교육청, 이색 달력 발간

충북도교육청이 학부모들의 밥상머리 교육을 도와주는 이색 교육자료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책상 달력 형태로 제작된 이 자료는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재미와 감동이 있는 예화(例話)를 읽어 가며 밥상머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이제까지의 어느 학부모 자료보다도 좋은 교육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밥상머리 교육용 달력

은 꿈을 이루기 위한 비법, 잘못된 습관, 공부의 원리, 건강한 정신 등과 같은 다양한 실용적 주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재미있는 예화와 함께 짜임새 있게 담겨져 있다.

도교육청은 이 외에도 가족 간의 존수, 호칭, 혼례, 상례, 민속명절, 24절기, 삼강오륜 등 조상들의 전통예절을 알기 쉽게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다룬 '전통의 숨결과 함께 하는 절제된 멋'에



(禮)도 함께 발간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교육에 참가하는 학부모 위주로 자료를 배포하여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학교정보공시 비교 검색 서비스 실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항목별 교육 정보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학교정보공시제 시행 1주년을 맞아 12월 24일부터 학교정보공시의 주요 지표에 대한 비교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이 서비스는 '학교알리미' 홈페이지(www.schoolinfo.go.kr)를 통해 제공되며, 비교 대상 공시정보는 계량화 가능한 학교별 학생현황의 21개 세부항목과 39개 지표

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시·군교육청 평균 및 시·군교육청 내 학교 정보를 동시에 비교·열람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학교별 정보검색 추가 기능으로 개별학교 공시정보를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school report' 코너와 학교별 특색교육과정을 홍보하는 '우리학교 최고' 코너를 신설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수요자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더욱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얻을 수 있도록 학교정보공시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고문의 032-433-1633

대한민국 Clean Energy의 선두주자, KIECO의 꿈은 그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1994년 100% 민간투자사업으로 설립된 우리 나라 경제 성장과 함께 세 손 KIECO가
이제 KIECO는 Clean Energy의 400, 700, 1000배의 성장을 이룬다
에너지 기업은 나라 발전의 원동력 에너지 공급으로 만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공합니다.
위 경쟁의 도전에 위 큰 경쟁 위해 우리는 KIECO를 지켜야 합니다.

KIECO
한국물환경기술연구원